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7.30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부분적 중단 제안(7.28)
- ② 집행위의 이스라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일부 중단 제안(7.28)
- ③ ERC 위원장 임기 단축 제안에 연구계 강한 우려 ... 연구기관들, 집행위 제안에 반발(7.24)
- ④ 유럽연합 이사회, 2026~2027년 유라툼 프로그램 연장 승인(7.24)
- ⑤ EIC, ARPA 모델 기반 신규 자금지원 제도 시범 도입(7.24)
- ⑥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연구혁신 투자 촉진 위해 EU 재정적자 규정 개정 촉구(7.24)
- ⑦ 과학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7.24)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Erasmus+, 고등교육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173개 신규 프로젝트 선정(7.24)
- ② Erasmus+ '14~'20 최종평가 및 '21~'23 중간평가 보고서 발간(7.17)
- ③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 내 사회과학 및 인문학 통합에 관한 보고서 발간(7.28)
- ④ 호라이즌 유럽 2026~2027 보건 클러스터 예산 축소(7.28)
- ⑤ EU 통계청, EU 정부 2024년 R&D 지출 3% 증가 발표(7.29)
- ⑥ (SB펀딩레이더)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고(7.29)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BRIDGES 프로젝트, 이주 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 ② (성공사례) 자율주행 화물차 확산을 위한 기술 검증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집행위,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부분적 중단 제안(7.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
 - 중단 대상은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내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에 한정
 - ※ 이번 결정은 사이버보안, 드론, 인공지능 등 이중용도 응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 와해적 혁신과 신흥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IC Accelerator에 이스라엘 기업이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침
 - 중단 조치는 EU-이스라엘 가입 협약 제2조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투에서 인도주의적 휴전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인도적 지원 합의를 이행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
 - 제안된 일시 중단은 표적화되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이며, 이스라엘 대학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음
 - 제안이 채택되려면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의 지지를 받아야 함
 - EU와 이스라엘은 1995년 협약 체결 이후 과학·기술·문화 협력을 이어왔으며, 2021년 이스라엘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EU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재정 부담도 하고 있음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921

② 집행위의 이스라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일부 중단 제안(7.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응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호라이즌 유럽 혁신 보조금 참여를 제한하는 제안을 발표
 - 제안은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 보조금 차단으로, 최대 250만 유로 규모의 시장 출시 기술과 제품 개발 지원금을 이스라엘 기업이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 Accelerator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사이버보안, 드론, 인공지능 등 군사·안보적 이중용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위의 표적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기아와 아사 사망 보도가 이어지면서 EU 회원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상황은 견딜 수 없다”라고 발언
 -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조사 결과 이스라엘이 병원 공격, 팔레스타인 대규모 강제 이주 등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으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EU 전체 협약 중단 합의는 무산된 상태
 - 그러나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필수적 인도적 지원 차단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독일 정부도 인도적 지원 공수를 발표하는 등 입장 재고 조짐
 - 유럽 학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중단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스페인과 벨기에 대학들은 이스라엘 대학 보이콧을 지지하지만 독일 대학들은 이스라엘 대학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력”으로 주장하며 보이콧에 단호히 반대
 -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시행되며,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프로젝트나 유럽연구위원회(ERC) 지원 등은 계속 이스라엘 참여가 가능

③ ERC 위원장 임기 단축 제안에 연구계 강한 우려 ... 연구기관들, 집행위 제안에 반발(7.24)

- 연구기관 그룹은 집행위의 ERC 위원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제안에 우려 표명
 - 집행위는 2028~2034년 R&I 프로그램 제안서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 위원장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단축 제안
 - EU-Life 연구기관 그룹은 해당 제안을 ERC의 독립성 침해하는 ‘위장 공격(veiled attack)’으로 규정
 - ERC는 2007년 설립된 EU 기초연구 지원 기구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가 전략을 수립하고 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준자율적 구조
 - 현 위원장 마리아 랩틴은 2021년 임명돼 4년 임기를 수행 중이며, 최대 1회 연임 가능
 - 집행위는 제안의 이유로 “현행 임기(최대 8년)가 EU 다년재정프레임 워크(MFF) 기간을 초과하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2년마다 리더십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과학계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ERC는 과학계 주도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발
 - EU-Life 외에 다른 단체들도 집행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엘러 의원은 위원장 임기 단축이 해결할 문제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많은 연구계 지도자들은 ERC와 EIC가 집행위와 EU R&I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ERC 과학위원회는 집행위에 자금 지원 기관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데케텔레레 사무총장은 ERC를 법적으로 지속 재편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며, ERC는 자체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연구중심대학연합(The Guild)의 안팔모프스키 사무총장은 과학 위원회의 제안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ERC 현재 구조가 세계 과학계 중심 지위로 성장 가능케 했으며, 과학계 압력 증가 예상되는 만큼, ERC 구조 최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horizon-2020/2025/7/-Extreme-concern-over--veiled-attack--on-ERC.html>

4 유럽연합 이사회, 2026~2027년 유라툼 프로그램 연장 승인(7.24)

-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2027년 유라툼(Euratom)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연장이 원자력 안전, 보안, 방사선 보호, 폐기물 관리 강화와 핵융합 에너지 분야 EU 리더십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유라툼 프로그램은 원자력 연구와 혁신을 촉진해 암 치료법 개선, 에너지 안보와 자율성 강화, 경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호라이즌 유럽의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유럽 핵융합·핵분열 로드맵 실행을 뒷받침
 - 2026~2027년판은 EUROfusion(핵융합), EURAD(폐기물 관리), PIANOFORTE(방사선 보호), CONNECT-NM(핵 물질) 등 유럽 공동 자금 파트너십을 지원
 - 또한, 민간 파트너십과 유럽혁신생태계를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대한 업계의 참여 촉진 예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council--approves-extension-euratom-programme-2026-2027-2025-07-24_en

⑤ EIC, ARPA 모델 기반 신규 자금지원 제도 시범 도입(7.24)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미국 ARPA 모델 기반 신규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시범 도입할 예정
 - ‘첨단혁신챌린지(Advanced Innovation Challenges)’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집행위가 차기 FP10에 따라 제안하는 EIC 개정안에 앞서 ARPA 방식 메커니즘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EIC 예산은 세 배 이상 증액된 345억 유로로 대폭 확대 예정
- 동 메커니즘은 2단계 지원 구조로 고위험·딥테크 혁신을 지원
 - 2026년에 1단계 공모가 개시되며, 타당성 조사를 위해 최대 30만 유로의 일시금을 지원
 - 2027년 개시되는 2단계 공모는 1단계 수혜자에게만 공개되며, 솔루션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에 최대 250만 유로의 일시금 지원
 - 2027년 워크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총 예산은 1단계에 400만 유로, 2단계에 2,500만 유로
 - 단일 기관 또는 소규모 컨소시엄이 참여 가능
 - 프로그램 매니저가 과제 선정과 관리에 직접 관여하고, 과제 선정 시 필라2와의 공동 펀딩 지속도 고려됨
- 한편, 기타 예산 변화도 발생
 - 디지털·청정기술·바이오 프로젝트를 위해 도입된 유럽전략기술플랫폼 STEP 스케일업 공모에도 2026년 3억 유로가 추가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1,000만~3,000만 유로 규모 지분투자를 받게 됨
 - EIC Accelerator 투자 한도가 기존 1,5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로 축소
 - EIC Pathfinder 지원 한도는 450만 유로로 상향(현재는 오픈콜 300만 유로, 챌린지콜에 400만 유로 지원)
 -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는 이번 초안에서 제외됨. 집행위는 차기 예산 기간에서 스케일업 자금 조달은 유럽경쟁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⑥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연구혁신 투자 촉진 위해 EU 재정적자 규정 개정 촉구(7.24)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R&I 투자를 재정적자 규정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
 - EU의 GDP 대비 3% R&D 투자 목표 달성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
 - 동 제안은 7월 16일 채택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 관련 EESC 의견서에 포함됨
 - ERA는 2000년 출범했으며, 2002년 회원국이 3% 투자 목표를 채택했으나 20년 넘게 평균 2.2%에 머물고 있음
 - 집행위는 2026년 하반기 ER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연구자 이동성과 지식 순환 장벽 해소를 위해 법적 수단 도입 계획
- EESC는 재정규칙 개혁이 혁신 성과가 낮고 재정적자가 큰 국가의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등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두뇌유출 방지 및 연구자·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한시적 세금 감면도 적자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
 - 3% 목표 외에도 회원국들이 추가로 1%를 위기대응 및 이중용도 연구에 투자할 것도 제안
- ERA 법안은 세금, 급여, 성평등 등 회원국 저항이 큰 분야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조합해 진전을 도모해야 함
 - 지식의 제5자유(연구·혁신·지식 순환)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오픈 사이언스, 속도와 윤리감독, 응집력과 우수성 간 균형 필요
 - 저연구 역량 지역은 스마트 특화 전략과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격차 해소 필요
 - 결속기금과 연구혁신 활동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ERDF 예산의 호라이즌 유럽으로 이전 확대 권고

- 지역 연구 인프라 투자 확대, 허위정보 대응 및 과학기관 신뢰 구축
-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은 응용·협력 연구 중심으로 설계해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혁신자금 지원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제안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budget/eu-urged-exempt-research-spending-deficit-rules>

⑦ 과학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7.24)

-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대중소통 역량 강화 요구가 증가함
 - 소셜미디어 발달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반면, EU 프로그램들은 이에 필요한 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Science Europe의 보렐-다미안 사무총장은 과학자들에게 연구와 대중소통 모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
- 과학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주장
 - 보렐-다미안은 기관이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담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최근 소속 과학자를 위한 대중 연설 가이드를 발간해 연구 지식을 널리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 킹스칼리지 런던의 버첼 교수는 과학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중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EU 연구과제 수혜자에 대한 소통 의무 있으나, 지원은 부족
 - EU 연구 보조금은 결과를 학계 외부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소통 교육과 참여 기회가 부족한 상황
 - 마리퀴리(MSCA) 펠로우들은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수요가 많으며, 교육 세션은 정원 초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빈번

- 일반 청중 대상 아웃리치 행사도 참여 신청자가 수용 인원의 5배에 달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확인됨

○ 소통 방식 자체에 대한 재고 필요

-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 소통을 ‘지식 공동 창출(co-generation)’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
- 중앙유럽대학 위르게-보르사츠 교수는 과학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가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양방향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
-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는 없으며, 때때로 과학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인플루언서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international-news/communicating-science-uphill-struggle-europes-researchers>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Erasmus+, 고등교육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173개 신규 프로젝트 선정(7.24)

- Erasmus+ 고등교육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for Higher Education, CBHE) 2025년 공모에서 173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예정
 - 약 125개국의 1,550여 명의 고등교육 이해관계자가 참여
 - 해당 프로젝트들은 EU, 준회원국과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지역의 대학 및 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수행
 - 교육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현대화, 혁신적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 교직원 훈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교육 사명 수행을 지원
 -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분쟁,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재교육 필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며,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과 가치사슬 추진에도 기여
 - 선정된 주제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서발칸), 에너지 효율적 건축설계(동부), 해양산업 녹색·디지털 전환(남지중해), 해양 플라스틱 관리(아시아), 아랄해 수자원 교육(중앙아시아) 등 각 지역의 특화 과제를 다룸

출처

<https://erasmus-plus.ec.europa.eu/news/173-new-projects-proposed-for-funding-to-support-international-cooperation-in-higher-education>

② Erasmus+ '14~'20 최종평가 및 '21~'23 중간평가 보고서 발간(7.17)

- EU는 Erasmus+ 프로그램의 2014~2020년 최종평가 및 2021~2023년 중간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 보고서에 따르면 Erasmus+는 개인, 기관, 그리고 교육·훈련·청년·스포츠 부문 전반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명확한 권고 사항을 제시
 - 프로그램은 개인의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회복력 등 핵심 기술 개발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학습 모빌리티 비참가자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4~2020년 동안 620만 명 이상, 2021~2023년 동안 약 160만 명의 참가자의 해외 학습 모빌리티를 지원
 - Erasmus+에서 포용성은 점차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기회가 적은 사람'으로 분류된 참가자의 비율이 2014~2020년 약 10%에서 2023년 15%로 증가
 - 2014~2020년 동안 13만 6천여 개 기관, 2021~2023년 동안 7만 7천여 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 협력 및 운영 개선에 도움을 줌
 - 두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개인과 기관에 큰 유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U 공통 가치와 유럽 정체성 확립에 핵심 역할을 수행

출처

<https://erasmus-plus.ec.europa.eu/news/final-evaluation-of-erasmus-2014-2020-interim-evaluation-for-2021-2023-report-now-available>

③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 내 사회과학 및 인문학 통합에 관한 보고서 발간(7.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내 사회과학·인문학(SSH) 통합 현황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2021~2023년 동안 지원받은 프로젝트 예산, 참여 기관 유형, 참여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
 - 보고서는 학제간 파트너간 공통 언어 구축의 중요성과, 의미 있는 협업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
 - SSH와 STEM 접근법을 결합한 지역 재생 사무소 설립과 같은 공동 활동이 협업과 혁신에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제시
 - SSH 통합에 대한 최종 평가는 2027년 이후, 호라이즌 유럽 예산이 완전히 집행된 뒤에 가능할 것
- 전체 필라2 주제 중 약 40%가 SSH 통합에 높은 관련성을 보임
 - 약 72억 유로(전체 예산의 41%)가 SSH 관련 주제에 배정됨. 이는 이전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33% 대비 증가한 수치
 -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88%에 최소 1개 이상의 SSH 파트너가 참여했고, 전체 파트너 중 22%가 SSH 소속 기관이었음
 - 42%의 프로젝트에서 SSH 파트너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SSH 참여율은 클러스터 5(기후·에너지·모빌리티)와 클러스터 6(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에서 각각 21%, 클러스터 3(시민안보)에서 20%로 가장 높았음
 - 반면 클러스터 4(디지털·산업·우주)는 14%, 클러스터 1(보건)은 12%로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SSH 통합에 가장 큰 기여

출처

<https://era.gv.at/news-items/new-report-looks-at-ssh-integration-in-the-frist-years-of-horizon-europe/>

4] 호라이즌 유럽 2026~2027 보건 클러스터 예산 축소[7.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호라이즌 유럽 2026~2027년 보건 분야 과제 예산을 하향 조정

※ [호라이즌 유럽 2026-2027 클러스터1 워크프로그램 초안](#)

- '26년 예산은 7,873억 9천만 유로 → 5,942억 4천만 유로(약 25% 감소), '27년은 기존 9,688억 8천만 유로 → 8,294억 4천만 유로(약 14% 감소)
- 2026년 1단계(single-stage) 공모 예산은 4억 5,600만 유로로(6,800만 유로 축소), 주요 주제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유해 영향 예방, 전염병 백신 개발, 저부가가치 의료 관행 해결, 심혈관 질환의 성별 요인 연구 등이 포함
- 2027년 1단계 공모 예산도 4억 1,400만 유로로(9,800만 유로 감소), 장애인 포용 지원, 기후 관련 인체 노출 연구, 혁신적 항생제 개발, 약물 부작용 위험 감소 등이 포함
- 반면 2027년 2단계(two-stage) 공모 예산은 1억 9,000만 유로로(6,000만 유로 증액),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 혁신 주제가 새롭게 포함
- 집행위는 워크프로그램 초안에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환자·간병인·의료 시스템·사회에 큰 부담을 주며,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더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vaccines/commission-cuts-funding-planned-horizon-europe-health-calls>

⑤ EU 통계청, EU 정부 2024년 R&D 지출 3% 증가 발표(7.29)

- EU의 2024년 정부 R&D 예산 지출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EU 전체의 정부연구개발지출(GBARD)은 약 1억 2,791만 6천 유로로, GDP 대비 0.71% 수준이며 전년 대비 3.4%, 2014년 대비 59.5% 증가
 - 1인당 예산은 284.7유로로, 2014년(181.3유로) 대비 57% 증가
 - 국가별 1인당 R&D 예산은 룩셈부르크(759.2유로)가 가장 높고, 덴마크(586.8유로), 네덜란드(542.7유로)가 뒤를 이음
 - 반면 루마니아(19.1유로), 불가리아(38.3유로), 헝가리(58.7유로)는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2014~2024년 동안 모든 EU 국가에서 1인당 R&D 예산이 증가. 라트비아(+313%), 슬로베니아(+252%), 리투아니아(+197%)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른 예산 분배의 경우, GBARD의 35.7%는 일반 대학기금(GUF)을 통한 지식 증진에 사용되며, 16.6%는 기타 지식 증진, 9.4%는 산업 생산·기술, 7%는 보건, 6.1%는 우주 탐사·개발에 배정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50729-2>

⑥ [SB편딩레이더]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고(7.29)

- EU는 호라이즌 유럽, 환경 및 기후행동 프로그램(Life),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투자은행, 공정전환 메커니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연구를 지원
 - EU는 에너지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탈탄소화, 에너지안보, 에너지 접근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며 소비를 줄이는 목표에 맞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목표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을 지원

호라이즌 유럽

-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전환\(수산업 및 양식업\)](#) / 9월 24일 마감 / 예산 2,330만 유로
- [폐기물 활용\(재생연료·화학물질·소재 순환생산\)](#) / 10월 29일 마감
- [풍력 에너지 혁신 제조](#) / 9월 2일 마감 / 2,800만 유로
- [에너지 집약산업의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 9월 16일 ~ 2026년 2월 17일 / 1,500만 유로
- [청정 에너지 전환 공동 자금 파트너십](#) / 9월 2일 마감 / 6,900만 유로
- [전력망·저장 기술의 에너지 안보 핵심 요소](#) / 9월 2일 마감 / 900만 유로
- [파력 에너지 기술 위험 경감](#) / 9월 16일 ~ 2월 17일 / 2,000만 유로
- [해상 풍력의 환경 영향 최소화](#) / 9월 16일 ~ 2월 17일 / 1,500만 유로
- [도시 밀집 지역의 지하 열에너지 저장](#) / 9월 16일 ~ 2월 17일 / 1,800만 유로
- [태양열 발전용 열에너지 저장 솔루션 시범](#) / 9월 16일 ~ 2월 17일 / 1,500만 유로
-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보안 강화 혁신 솔루션](#) / 9월 16일 ~ 2월 17일 / 600만 유로
- [생성형AI 기반 에너지시스템 디지털 백본 솔루션](#) / 9월 16일 ~ 2월 17일 / 1,600만 유로

LIFE 프로그램

- [도시 및 지역 청정 에너지 전환 촉진](#) / 9월 23일 마감 / 700만 유로
- [유럽 산업·기업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 / 9월 23일 마감 / 900만 유로
- [건물 에너지 리노베이션 솔루션](#) / 9월 23일 마감 / 600만 유로
- [청정 에너지 전환 분야 법·정책 과제 프로젝트](#) / 9월 23일 마감

유럽방위기금(EDF)

- 개요: 항공기용 추진 기술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구
- 일정: 10월 16일 마감
- 예산: 4,900만 유로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공동 공모(Joint Call 2025)

- 개요: 녹색 에너지 국제 협력 프로젝트, 최대 3년 지원
- 예산: 8,000만 유로 (39개 자금 제공기관 공동)
- 일정: (사전제안서) 10월 9일 마감, (전체제안서) 2026년 3월 12일 마감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weeks-round-energy-related-calls?>

3. EU 연구성과

1 [성공사례] BRIDGES 프로젝트, 이주 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 이주를 위기 중심의 단순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회·연결·기여 관점에서 재조명
 - BRIDGES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주는 문제’라는 위기 중심 서사에 대해 도전하며, 이주를 기회와 공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서사 분석
 - Blanca (CIDOB 선임연구원)는 “현재 이주 관련 서사는 위기와 비상 사태에 집중돼 있다”며 “이주는 연결과 기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강조
- 미디어·정치권 담론의 역할 분석 및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
 - 미디어가 ‘우리 vs 그들’ 구도로 이주를 묘사해 고정관념과 분열 조장
 - 인간 중심 스토리텔링(가족·지역사회 이야기)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 가능성 확인
- 정책 선택이 대중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강조
 - 포용적 정책이 담론 전환에 기여
 - 제한적 정책은 부정적 서사를 강화, 반면 포용적 정책은 공존과 기여의 메시지 전달 가능
- 예술·언론·시민사회 협업 통해 서사 전환 시도
 - 저널리스트·예술가·교육자들과 협업해 공감 유도 콘텐츠(예: 힙합 콘테스트, 사진전 등) 제작
- 프로젝트 성과 폭넓게 확산, 다양한 기관과 담론 형성
 - 팟캐스트(3편), 정책브리프(3건), 영상(11편), 인포그래픽 등 다국어 툴킷 제작

- 유럽연합 집행위·OSCE 등 주요 기관에서 관련 논의 확산
- 후속 연구로 연결되며 정책 담론에 지속적 영향력 행사
 - Garcés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관련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 지속
 - “이주는 관리할 위기가 아닌, 함께 받아들일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BRIDGES 프로젝트

- 기간 : 2021.03 ~ 2024.02
- 예산 : 약 2,999,695.75 유로 (EU 지원 100%)
- 주관 : CENTRE D'INFORMACIO I DOCUMENTACIO INTERNACIONALS A BARCELONA (스페인)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power-telling-different-story-about-migration>

② [성공사례] 자율주행 화물차 확산을 위한 기술 검증

- MODI 프로젝트, 자율 화물 운송의 확산 과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 실증 중
 - CCAM(Connected, Cooperative and Automated Mobility) 기술 확산 중이나, 자율 화물차는 여전히 과제 존재
 - MODI는 로테르담-오슬로 구간에서 자율 화물 운송의 기술 장벽 실증하며 전면 상용화 위한 기반 마련
- 사람 없이 장거리 주행 가능한 시스템 개발 목표
 - 특정 구역에서 사람 없이 운행되는 트럭이 장시간 운전 가능토록 기술 확보 시도
 - 물류 효율성 향상 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악화되는 트럭 운전자 부족 문제 완화 기대
- 물류 현장 전 과정 통합 고려한 자동화 솔루션 모색
 - 국경 통과, 통관, 하역, 문서화 등 물류 전반에 걸친 과제 해결 필요성 제기
 - 물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자동화 시스템에 맞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식 모색
- 네덜란드-노르웨이 1,200km 구간에 초점
 - 네 개국 국경 넘는 구간 설정, EU-비EU 간 통관 절차 등도 포함
 - 로테르담·함부르크·예테보리·모스(노르웨이) 등지에서 각기 다른 조건의 실증 사례 수행
- 자율 화물 기술 공유 위한 유럽 회의에서도 기술력 공개
 - 2023년 5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ITS 유럽 총회에서 주요 주제 발표
 - 협업 기반 교통관리, 데이터 기반 운송 효율 향상 등 두 세션에서 MODI 사례 소개

○ MODI 프로젝트, CCAM 기반의 상용화·안전성·상호운용성 중심 기술 개발 중

- SAE L4 수준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 구현 위한 실증 단계로, 2026년 프로젝트 종료 예정

MODI 프로젝트

- 기간 : 2022.10 ~ 2026.03
- 예산 : 약 27,992,880.00 유로 (EU 23,030,095.00 유로 지원)
- 주관 : ITS NORGE-NORSK FORENING FOR MULTIMODALE INTELLIGENTE TRANSPORT SYSTEMER OG TJENESTER - ITS NORWAY (노르웨이)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9652-paving-the-way-for-self-driving-trucks>